

데이터로 보는  
전북교육

# 전국 학생 해외 유학 현황

| 박호용(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문관)

## 산출식

-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 = (유학생 수 / 해당연도 학생 수) \* 10,000
- 유학생 수는 인정유학·미인정유학·자비유학만 해당함. 해외이주, 파견동행 미포함.

## 조사기준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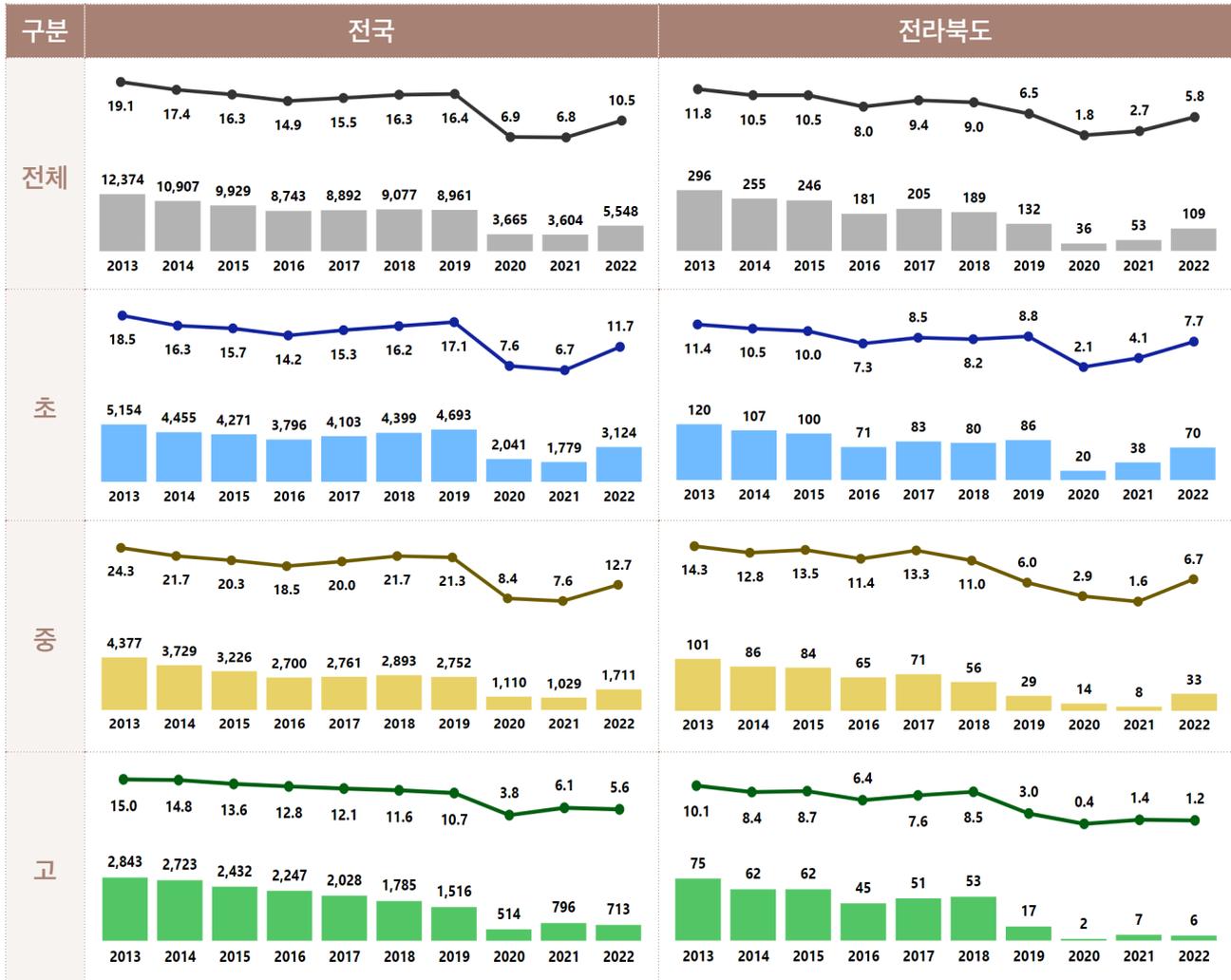
- 유학생 수 : 학년도 기준(해당연도 3월 1일 ~ 다음연도 2월 말)
- 학생 수 : 해당연도 4월 1일



# I

## 연도별 유학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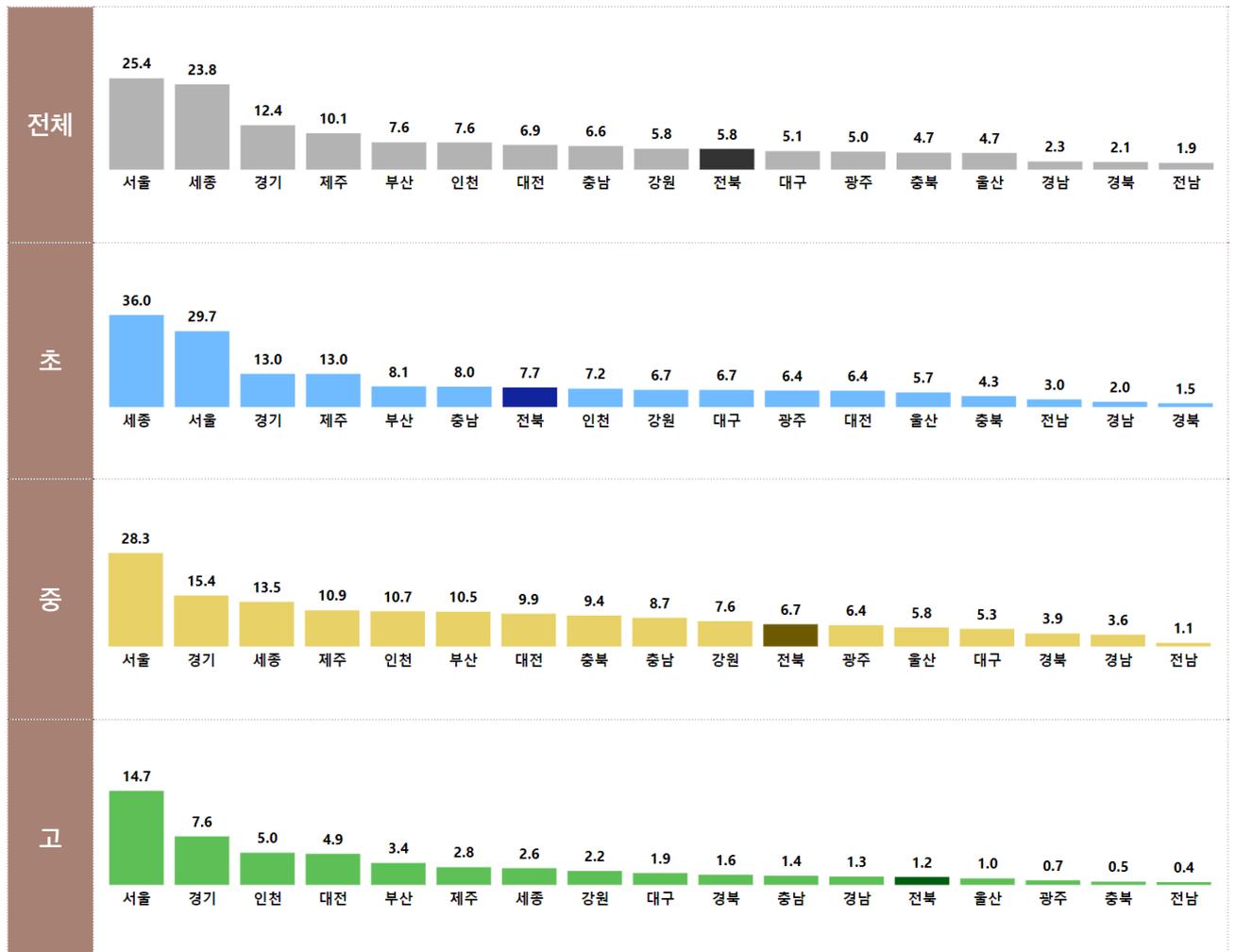
(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 및 전체 유학생 수, 단위 : 명)



- 전국의 초·중·고 유학생 수는 2022학년도 기준 5,548명으로 2013학년도 12,374명에 비하여 6,826명(△55.2%) 감소하였음. 전북의 초·중·고 유학생 수는 2022학년도 기준 109명으로 2013학년도 296명에 비하여 187명(△63.2%)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.
- 2013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 역시 전국과 전북 각각 8.6명(△45.0%)과, 6.0명(△50.8%) 감소하여,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이외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.
- 초·중·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, 전국과 전북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유학생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학년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2학년도에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지만, **고등학생의 유학생 수는 2022학년도에 2021학년도보다 소폭 감소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.**

# II

## 시도별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 (2022학년도, 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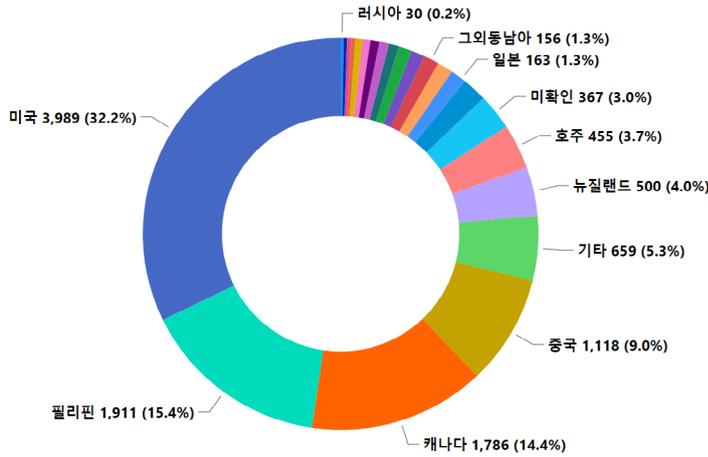


- 17개 시도별로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를 살펴보았음.
- 초·중·고 전체 학교급에서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(25.4명)과 세종(23.8명)이었고,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(1.9명)이었음. 전북은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가 5.8명으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았음.
- 초등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(36.0명)이었으며, 이는 서울(29.7명)보다 높은 수치였음.
- 중학생과 고등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모두 서울(중 28.3명, 고 14.7명)이었고, 가장 적은 지역은 역시 모두 전남(중 1.1명, 고 0.4명)이었음.
-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였으며, 특히 **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가 많은 서울·세종·경기 지역과 전남·경북·경남 지역의 편차가 큼**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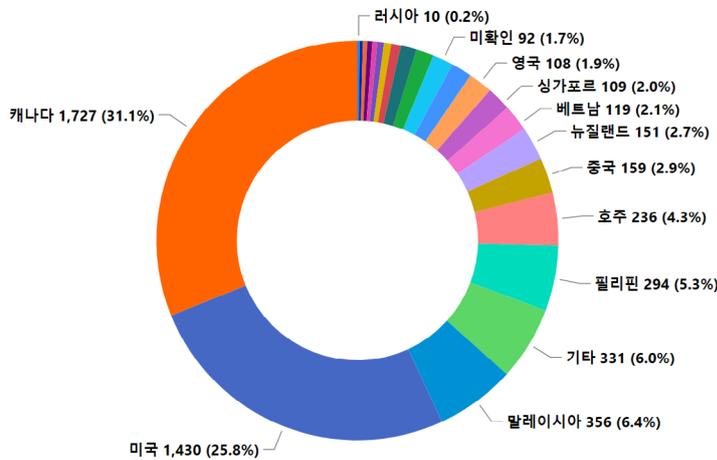
# III

## 유학 국가별 유학생 비율 (2013학년도·2022학년도, 단위 : %)

■ 2013학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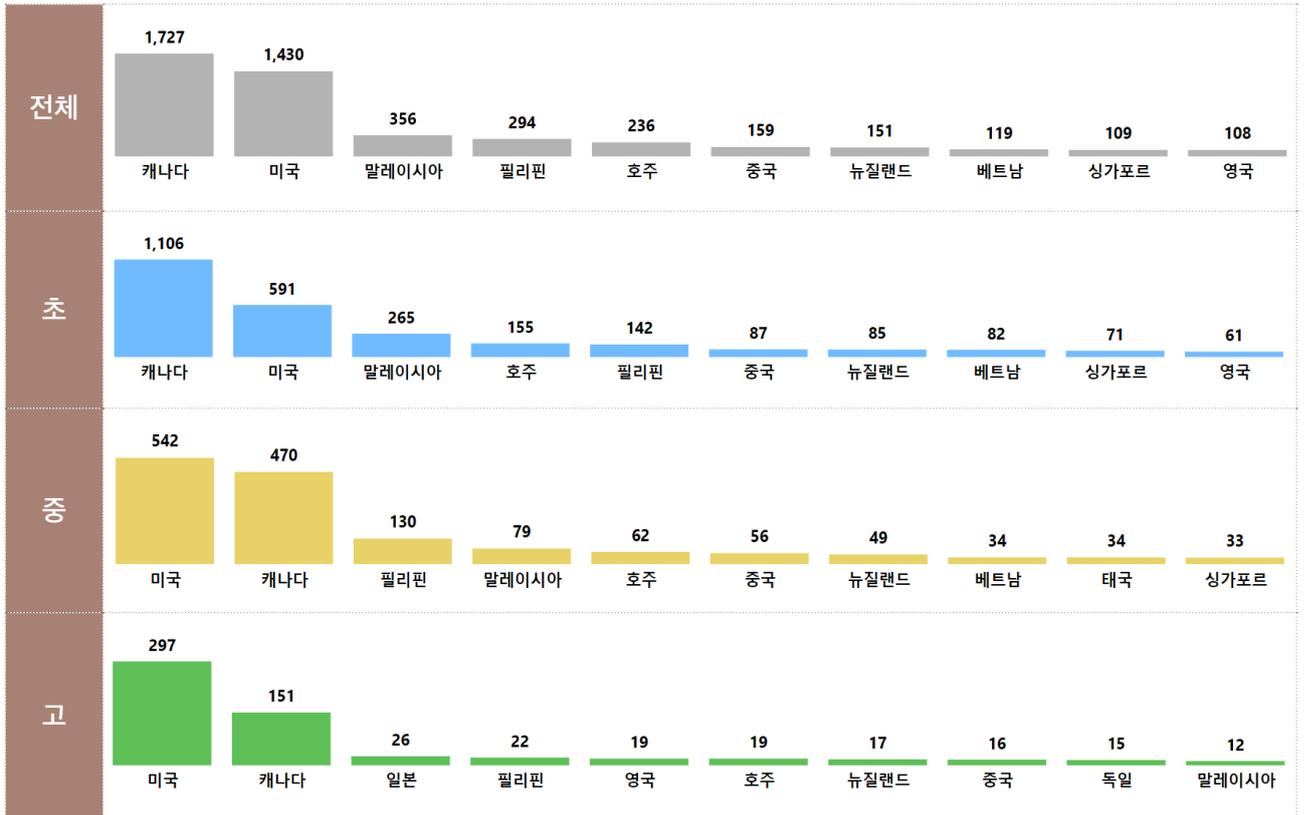
■ 2022학년도



- 2013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학생들이 선택한 유학 국가들을 살펴봄으로써, 유학 국가 선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.
- 2013학년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유학 국가는 **미국이 전체 유학생들의 32.2%**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필리핀(15.4%), 캐나다(14.4%), 중국(9.0%), 뉴질랜드(4.0%), 호주(3.7%) 순으로 나타났음. 반면 **2022학년도**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유학 국가는 **캐나다가 31.1%**로 가장 많았으며, 그다음으로 미국(25.8%), 말레이시아(6.4%), 필리핀(5.3%), 호주(4.3%), 중국(2.9%) 순으로 나타났음.
- 2013학년도에 비하여 2022학년도에 미국·필리핀·중국의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, 이에 따라 선호 유학 국가의 비율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.

# IV

## 유학 국가별 유학생 수 (2022학년도, 상위 10개국, 단위 : 명)



- 2022학년도에 유학생들이 선택한 상위 10개국을 학교급별로 살펴보고자 함.
- 초등학교에서는 **캐나다(35.4%)가 가장 많았으며**, 미국(18.9%), 말레이시아(8.5%), 호주(5.0%), 필리핀(4.5%), 중국(2.8%), 뉴질랜드(2.7%) 순이었음.
- 중학교에서는 **미국(31.7%)이 가장 많았으며**, 캐나다(27.5%), 필리핀(7.6%), 말레이시아(4.6%), 호주(3.6%), 중국(3.3%), 뉴질랜드(2.9%) 순이었음.
- 고등학교에서 역시 **미국(41.7%)이 가장 많았으며**, 캐나다(21.2%), 일본(3.6%), 필리핀(3.1%), 영국(2.7%), 호주(2.7%), 뉴질랜드(2.4%) 순이었음.

출처

- 2013~2023년 교육통계서비스(KESS)

☐ <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>은 전라북도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 [교육정책연구-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]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■ 보고서 바로가기